

# “빛고을은 지금, 동계 전훈 열기로 후끈”



15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동계 전지훈련중인 경기체고 양궁부 선수들이 실내 훈련을 하고 있다. 광주국제양궁장은 전천후 훈련이 가능하고 최신 장비는 물론 미디어 장비까지 구비해 선수들에게 인기가 높다. /광주국제양궁장 제공

### 국제양궁장·국제수영장 등 스포츠 인프라 활용 광주시체육회 전지훈련 유치 홍보 시너지 효과 양궁·펜싱·수영 등 맹혼...핸드볼·하키 등 예정

빛고을 광주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선수들의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달 초부터 펜싱, 수영, 양궁 등 타 지역 선수들이 남부대 국제수영장 등 광주 관내 훈련장을 방문해 동계 전지훈련에 매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 개최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등 국제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한 광주는 국제규격의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광주시체육회의 적극적인 전지훈련 유치 홍보가 시너지 효과를 거둬 최상의 동계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남기술과학고와 천안동정고 등 30여명의 펜싱 선수단이 염주펜싱장에서 광주서구청 등 대학, 일반부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 남산중, 울산 태화중, 대전 탄방

중 등 7개 팀 50여명도 광주제고 펜싱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광주제고에는 오는 4월 광주에서 개최할 제32회 전국체육고등학교체육대회를 앞두고 많은 선수단이 다녀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허세현 대전 문정중 감독은 “광주는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선수들과 시설 등 전지훈련지로 만족하고 있어서 자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수영 꿈나무 선수들도 광주를 찾았다. 군산 신희초, 영광초, 경북 대도초, 전북 고창초 등 전국 각지의 수영 꿈나무들이 2019세계수영대회 개최지인 광주를 찾아 최신 시설인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국가대표의 꿈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있다. 국내 양궁 메카로 자리 잡은 국제양궁장에는 2020도쿄올림픽을 대비해 일본 도쿄팀이 광주 선수단과 합



광주제고 펜싱장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중등부 선수들이 기법 훈련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동훈련을 마치고 돌아갔고, 경기체고 선수단이 뒤를 이어 맹훈련에 돌입했다. 또 오는 20일부터는 남자 국가대표 후보선수단 22명이 방문해 다음달 8일까지 훈련할 예정이다. 국내·외 전지훈련팀이 자주 찾고 있는 광주국제양궁장은 전천후 훈련이 가능하고 훈련에 필요한 최신 장비는 물론 미디어 장비까지 갖추고 있어 선수들에게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핸드볼과 하키 선수들도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천안 월봉중 남자 핸드볼 선수들은 조선대 체육관에서 조대부중과 조대부고, 조선대와 훈련할 예정이다. 하키 주니어 국가대표팀을 비롯해 국군체육부대, 순천향대, 충북 제천고 등 6개 팀 선수들도 1-2월에 걸쳐 조선대 하키장에서 동계 전지훈련에 전념할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는 “광주를 찾는 타 지역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체육시설 등 관내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광주가 운동하기 가장 좋은 도시라는 점을 부각시키겠다”고 말했다. /백희중 기자 ehsg01@kdaily.com



## “국내파 테스트로 본선 리스크 최소화”

### 신태용 감독, 터키 전훈 대표팀 명단 발표

### 동아시아컵 안 나왔던 8명 발탁...팀워크 전술 강화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은 1월 터키 안탈리아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24명의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면서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위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전지훈련 명단을 짰다”고 말했다. 신 감독은 15일 축구회관에서 열린 대표팀 선수단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본의 아니게 차출이 힘든 선수들을 빼고 새로운 선수들을 포함하게 됐다”라며 “전지훈련에선 기존 선수들과 새로운 선수들이 유연하게 전술을 소화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팀은 러시아월드컵을 앞두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다”라며 “최대한 많은 풀로월드컵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표팀은 김신욱(전북), 정성욱(제주·이상 공격수), 이근호(강원), 이재성, 이승기, 손준호(이상 전북), 정우영(빛셀고베), 김태환(상주), 이창민, 이찬동(이상 제주), 김승대(포항), 김성

준(서울 입단 예정·이상 미드필더), 김영권(광주), 장현수(FC도쿄), 김진수, 최철순, 김민재(이상 전북), 고요한(서울), 홍철, 윤영선(이상 상주), 정승현(사간도스·이상 수비수), 김동준(성남), 조현우(대구), 김승규(빛셀고베·이상 골키퍼)로 꾸려졌다. 지난해 12월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우승 멤버 중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권경원(대전), 김민우, 염기훈(이상 수원), 이명주, 주세종(서울), 윤일록(요코하마), 이정현(부산)이 빠졌다. 대신 김승규, 김영권, 홍철, 이찬동, 손준호, 김태환, 이승기, 김승대 등 E-1 챔피언십에 참가하지 않은 다수의 선수가 합류했다. 손흥민(토트넘), 기성용(스완지시티) 등 유럽파 선수들도 전원 제외됐다. 해당 시기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기간이 아니라 유럽파 선수들을 소집하기 힘들다. 장현수는 소속팀 일정으로 30일 자메이카전 직후 조기 복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PGA 투어 소니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제임스 한. /EPA-연합뉴스

## 제임스 한, 6차 연장 끝에 소니오픈 아쉬운 준우승

제이미포프 제임스 한(37·한국이름 한재웅)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총상금 620만 달러)에서 6차 연장 끝에 아쉬운 준우승을 차지했다. 제임스 한은 14일(현지시간)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9개를 몰아치고 보기는 1개로 막아 8언더파 62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7언더파 263타로 4라운드를 마친 제임스 한은 패트 키자이어(미국)와 6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분패, 투어 통산 3승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 반면 지난해 11월 OHL 클래식에서 첫 우승을 달성한 키자이어는 2017-2018시즌 첫 2승을 거둔 선수가 됐다. 두 선수는 5차 연장까지 승부를 내지 못하고 17번 홀(파3)에서 6차 연장을 치렀다. 6차 연장에서 둘의 티샷은 나란히 그린 오른쪽 리프에 떨어졌으나 남은 거리가 제임스 한이 더 멀었다. 퍼터로 굴린 두 번째 샷은 제임스 한의 공이 약 2m 남짓한 곳에 멈춰고, 키자이어는 약 1m 파 퍼트를 남겼다. 제임스 한의 파 퍼트는 홀 오른쪽을 맞고 나가는 바람에 결국 보기에 머물렀고, 키자이어는 파 퍼트에 침착하게 성공하며 길었던 연장 승부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 화순초 스키, 동계체전 눈부신 선전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전남 동계스포츠의 명예를 드높인 화순초 스키부 선수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체육회 제공

### 크로스컨트리 계주 금메달 등 은4, 동4 획득 전남, 불모지 한계 극복 동계스포츠 강팀 부상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동계스포츠 불모지인 전남선수단이 선전을 펼치고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가 포함된 전남체육회팀이 바이애슬론 여자 일반부에서 금 2, 은 2개를, 스키 크로스컨트리 최강팀 화순초 스키부가 금 1, 은 4, 동 4개를 보태며 15일 현재 금 3, 은 6, 동 4개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은 내달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예카테리나 압바쿠모바(전남체육회)와 프롤리나 안나(전남체육회)가 바이애슬론 개인 15km와 스프린트 7.5km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내며 평창 메달 가능성을 확인했다.

초등부 스키 크로스컨트리 계주(6km)에 출전한 화순초(최희연·김지민·전하림)도 금메달을 보냈다. 또 예카테리나는 바이애슬론 스프린트(7.5km)와 안나, 추경미와 조를 이룬 18km 계주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했다. 화순초는 김태양·임주환·전형조·김승민이 팀을 이룬 크로스컨트리 계주(8km)와 김지민이 클래식(3km), 전하림이 복합, 프리(4km)에서 각각 은메달을 추가하며 최강팀의 명성을 드높였다. 이밖에 화순초는 조하은이 크로스컨트리 프리(4km)에서, 김태양·최희연이 클래식(3km)에서 김지민이 복합에서

동메달을 추가하며 당초 예상 입상 메달(12개)을 초과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이번 동계체전에 금1, 은4, 동4개를 획득한 화순초는 지난해 창단한 화순제일중 스키부와 연계 육성을 통한 체계적인 육성시스템이 마르면, 우수 선수 발굴,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홍식 전남체육회장 직무대행은 출전중인 선수를 격려하며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 해달라”며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학생 선수단의 안정적 연계 육성에 더욱 매진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수단 지원과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창올림픽 개최로 종합순위 미실시로 개최되는 이번 동계체전에 전남선수단은 6종목 161명(선수 120, 경기임원 41명)이 참가했다. /백희중 기자 ehsg01@kdaily.com

## 27일 몰도바·30일 자메이카·3일 라트비아전 신태용호 전훈 친선경기 일정 확정

축구대표팀의 1-2월 친선경기 장소와 시간이 확정됐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27일 오후 10시(이하 한국시간) 몰도바, 30일 오후 8시 자메이카, 2월 3일 오후 11시 30분 라트비아와 터키 안탈리아 마르타 스타디움에서 평가전을 치른다. 세 팀 중 한국 축구대표팀(60위)보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높은 팀은 자메이카(64위)뿐이다. 라트비아는 132위, 몰도바는 167위다. 북중미 팀인 자메이카는 2018 러시아월드컵 같은 조에 속한 멕시코, 동유럽 팀인 라트비아와 몰도바는 스웨덴, 독일전 모의고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 기간은 FIFA가 정한 A매치 기간이 아니다. 러시아월드컵에 출전하는 주요 팀들을 제외하지 못한 이유다. 한국 축구대표팀도 유럽에서 뛰는 해외파 선수들 대신 국내 K리그와 일본 J리그,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로 팀을 꾸려 전지훈련과 연습 경기를 치른다. 대표팀은 A매치 기간인 3월 28일 폴란드와 원정 평가전을 소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K리그 챌린지 올해부터 ‘비디오판독’ 도입

### 프로 계약만 17세로 하향

작년 하반기부터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1부리그)에 도입된 비디오판독(VAR)이 올 시즌에는 챌린지(2부리그)로 확대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축구회관에서 2018 K리그 1차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차레로 열어 올해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비디오판독을 챌린지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K리그 클래에서 시작한 비디오판독이 올해에는 챌린지까지 전면 시행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클래식에 비디오판

독을 도입한 이후 오심 논란과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이 줄어드는 등 공정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자 챌린지까지 확대하게 됐다. 올해 10개 구단이 경쟁하는 챌린지까지 비디오판독이 확대되면서 총 20억 이상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챌린지 비디오판독 대상 경기수는 182경기(플레이오프 포함)다. 프로 계약이 가능한 나이는 현행 만 18세에서 만 17세 이상으로 낮춘다. 아울러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선수들에 한해 연맹 주관 유소년 대회와 프로 경기 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